

# 環境教育의 回顧와 展望

盧 隆 熙\*

烏兔忽忽하다더니 環境大學院의 設立을 위해 동분서주 하던 때가 어제 같은 데 창립 10주년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으니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다. 세월이 流水같은지 아니면 나이테에 둔감한 탓인지. 10년이면 江山도 변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 年曆이 아닌 學問 曆상의 10년이란 秒를 100등분하여 쓰고 있는 과학기술의 진보상으로 보아 몇 世代에 해당하는 세월인 지도 모른다. 이 짧지 않은 기간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일해 왔는가를 回顧해 보고 앞으로 어떤 것을 왜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展望해 보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다. 창립 10주년에 즈음하여 이 사람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環境大學院의 창설은 두가지 커다란 의의를 지녔다는 사실이다. 그 첫째는 環境大學院의 설립 및 성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機關形成의 成功事例라는 점이고 그 둘째는 조금전에 발표하신 사자나미所長이 밝힌 대로 日本의 筑波大學이나 北海道大學의 環境科學科가 自然科學에서 출발하여 종합과학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社會科學에서 시작한 종합과학성의 추구라는 특이성을 들 수 있다. 이제 이 두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얘기를 진진시켜 볼까 한다.

먼저 양해를 얻어야 할 것은 演題가 環境教育의 回顧와 展望이라고 되어 있으나 環境교육의 범위가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을 중심으로 좁혀져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에 걸친 포괄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체험하고 느낀 것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다분히 主觀的見解에 흘렀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모두 본인의 體驗을 통한 지난날의 홀러온 모습과 본인의 생각하는 바를 통한 앞날에 대한 통찰을 듣기 위해 주어진 기념행사의 연제에서 온 불가피한 결과로 생각하고 양해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먼저 環境大學院의 기관형성문제에서 부터 회고해 보기로 하겠다. 環境大學院의 설립은 1973년이어서 올해로 창립 10주년이 되지만 그 모체인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가 新設된 것은 1968년의 일이고 이 科가 設置되었던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이 設立된 것은 科의 설치 9년전인 1959년의 일이다. 본인은 行政大學院, 同大學院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環境大學院 등 3기관의 형성에 유일하게 교수회<sup>(1)</sup>의 구성원으로, 학과장으로 또는 초대원장

\*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教授

(1) 1961년까지의 대학의 교수회는 총(학)장의 선출권과 학사행정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 기관이었고 助教授 이상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행정대학원장은 법과대학 학장이 당연직으로 겸하고 교무과장은 법과대학 교수가 겸직하고 있어서 개원 후 약 1년반동안은 본인만이 유일한 교수회 구성원이었다.

으로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통해 3기관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사사로운 얘기 같지만 1959년 서울대학의 助教授로 발령 받을 때까지 본인은 崇實大學(現崇田大學前身)의 법학과 조교수였다. 1957년 봄 강사로 출강하던 모교인 法大專任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담당키로 되어있던 과목을 다른 전공이었던 은사가 맡게 되어 뜻을 못이루고 좌절감에 빠져 있던 중 高秉國학장님의 권유로 행정대학원 설립요원 훈련에 참가하여 그해 여름에 미네소타대학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때 서울大學은 1954年 以來 미국 海外援助機關인 ICA의 지원을 받아, 미네소타대학과의 계약으로 醫大, 工大, 農大, 獸醫大 등 自然系大學의 教授再訓練과 각종 實驗器材를 도입해 오는 큰 사업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1957年 2月에 行政大學院의 設置를 支援하는 協約이 添加되었던 것이다. 이 사업은 동란중 피난지 釜山에서 戰時聯合大學의 일환으로 학교를 운영하다 收復後 廢墟로 된 서울로 올라와 校舍를 되돌려 받는 데도 시일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學問的인 國際交流는 물론 外國書籍의 入手조차 힘들었던 당시로서는 대단한 意義를 지닌 것이었다. 이와같은 서울大學의 再建을 위한 방대한 사업이 햇빛을 본 것은 당시의 總長이었던 崔奎南博士의 指導力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미네소타契約에 따른 行政大學院 設置支援內容을 보면 教授要員訓練, 顧問教授派遣, 圖書 및 各種器材購人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57年에 第一陣 11名, 58年에 第二陣 8名 포함 19명의 教授要員이 碩·博士課程을 밟았고 58年 3月부터 62年 6月까지 14名의 顧問教授들이 來韓하여 22年人의 用役을 提供했으며 數千卷의 圖書가 購入되었다.

1950年代末에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行政大學院같은 기관의 新設이 지니는 意味와 含蓄을 同大學院 創立 10週年紀念號 行政論叢에서 李漢彬博士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sup>(2)</sup>

「결코 그것은 現行教育制度에다 단지 教育單位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와는 달리 그것은 傳統的이고 거의 敵對의이었다고도 할만한 學界의 霧圍氣와 官僚制의 環境 속에다 새로운 學問의 기틀을 創造함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學問을 위한 學問이 標準規範이 되고 어떤 새로운 學問分野는 疑問視 또는 輕蔑視되던 學究霧圍氣에서 새로운 一團의 學者群을 創出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傳統的 規範과 前例가 風靡하는 官僚制 속에서 새로운 官僚群을 만들어 내고자하는 意志의 宣言이었다.」

물론 1956年에 韓國行政學會가 發足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그 主軸이 行政法學者들이었음을 생각할 때 당시 우리 學界에서는 極少數人을 除外하고는 行政學이 무엇인지 아는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外國에 그와같은 學問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雜學이라고 一笑에 붙었던 그런 때였다. 따라서 行政大學院의 設立推進은 外援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科學的 管理技術을 官僚들에게 習得시켜야 할 必要性을 切感한 外援機關의 意志가 크게 表出된 것이었다

(2) 李漢彬, “開發年代의 機關形成,” 「行政論叢」 Vol. 7, No. 1(1969), p. 2.

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新設되는 기관은 傳統的으로 法學이 行政官吏로 出世하는 디딤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法科大學에 附設하고 法大의 學長이 院長을 兼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行政大學院이 59년에 發足할 때에는 그 前年度에 高學長의 뒤를 이어 學長으로 就任한 申泰煥教授가 初代院長을 맡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 李漢彬博士는 「法科大學長이 法學者가 아니라 經濟學者였다는 事實도 行政大學院의 設立에는 促進作用이 되었다. 法大의 傳統과 當時 法大學長의 學名이 行政大學院 新設 및 行政學教育에 有效하게 쓰여질 수 있었다. 申學長은 또한 韓國行政學會 結成에도 積極的으로 參與하였다. 그래서 그는 法大를 基盤으로 하되 法學指向的이 아닌 行政大學院을 創設하는 새로운 計劃에 關係 周圍를 結束시키는 데 中樞의 役割을 하였다」고 叙述하고 있다.<sup>(3)</sup> 59년에 發足된 行政大學院에는 京鄉新聞에 設立趣旨를 投稿한 申學長의 高級公務員 養成機關이라는 외침에 呼應해서 一部에는 13對 1의 경쟁으로 志願者가 물려 들었고 二部에도 政府의 高級公務員과 軍部の 領官以上 志願者가 殺到해 왔다. 그러나 發足當時의 專任教授는 助教授 1名과 2名의 專任講師 뿐이고 院長과 敎務課長은 法大 所屬이었다. 여기서 몇가지 言及해 둘 것은 第一陣으로 歸國한 受訓要員의 大部分이 專任이 되지 못하고 時間講師였고, 젊은 敎講師들은 現實과의 妥協을 거리는 철없는 正義派인데다 學生들 특히 二部學生의 平均年齡은 敎授陣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當時 軍部를 除外한 一般公務員의 在職中訓練制度가 全無하여 學業에 힘겨웠고 顧問官의 意見에 따라 成績評價에 있어 強制分布制度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써서 學科目마다 科落生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生소한 制度의 운영에서 오는 強迫觀念들이 累積되어, 오다가 創設 다음 해에 있었던 4.19의 自由化 물결과 때를 같이해 爆發되어 적지 않은 混亂을 겪었다는 점이다. 亂世에는 奸臣이 날뛰고, 혼들은 물위에는 질겁불이 먼저 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여서 社會 전체가 激動하는 風浪속이니 學園內라하여 조용할 수 없었다. 淸濁과 是非를 가릴 겨를도 없이 목청 높여 크게 떠드는 소리가 참된 것으로 誤認받는 세상이 되고 보니 一身上의 利害關係로 뭉쳐진 勢力의 外침소리는 長期的賢明을 지닌 機關形成을 위한 本然의 모습을 지키는 데 적지 않은 代價를 支拂치 않을 수 없었다. 더우기 兼任制度가 없어진 院長자리에 文理大를 中心한 大學本部 側近者들이 專攻도 다르고 그동안 機關形成過程도 알지 못한 채 赴任해 오는 동안 事態收拾이 如意롭지 못하였음은 當然하다고 하겠다. 史學界의 泰斗였던 新任院長은 事態收拾을 못한 채 文教長官으로 轉出되고 뒤를 이어 院長으로 赴任한 政治學界의 巨物教授가 맨먼저 한 일이 自身の 副敎授昇進이었다는 등 말도 많은 가운데 5.16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時期에도 專任教授는 歸國 二陣, 三陣中에서 補強되어가고 미네스타協定에 의한 主要學術誌를 위시한 圖書購入은 1962年 6월 까지 持續되었고 軍事政府에 의하여 導入된 公務員教育에 行政學科目이 重點的으로 다루어지게 되고 行政考試와 昇進試驗에까지 必須課目으로 採擇케 되었다. 이리해서 行政學은

(3) 前揭論文, p. 3.

導人 3年 未滿에 外國理論의 紹介데 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尙好況을 맞이하게 되었고 機關은 機關대로 安定속에 停滯期를 맞게 되었다.

이제 行政大學院內에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가 設置된 經緯를 살펴보기로 하자. 오늘날 環境大學院의 前身인 行政大學院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가 新設된 것은 1968年의 일이다.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順調롭게 進行되면서 物的計劃의 必要性이 漸增하고 있었고, 都市化의 물결이 새로운 樣相을 띠고 進行되고 있어서 都市計劃專門家에 대한 社會의 需要도 크게 늘어나고 있을 그 當時까지 教育制度는 이를 전혀 外面하고 있었다. 東亞大學校 工科大學 都市工學科를 비롯해 소수학교에서 都市計劃을 가르치고<sup>(4)</sup>, 各 工科大學의 建築科나 土木工學科에서 選擇科目으로 都市計劃을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工學士 輩出을 위한 것이어서 地域經濟나 都市經濟를 위시한 社會科學의 側面은 弱한 편이었다. 따라서 計劃學의 綜合科學性으로 보아 大學院水準의 都市 및 地域計劃 專攻課程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時急하다는 外國人專門家들의 建議書가 政府에 담지하고 있을 때였다. 64년경부터 이런 主張을 해 온 外國人 計劃專門家들은 當時 우리나라 計劃專門家들을 많이 輩出한 工科大學이나 또는 學部의 專攻을 따지지 않고 學生募集을 할 수 있는<sup>(5)</sup> 行政大學院에 이를 設置할 것을 試圖기 위해 接觸한 바 있으나 保守的인 學閥氣風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契機가 되어 機關新設이 推進되게 되었다. 67年 하와이에서 開催되었던 Pacific Conference on Urban Growth에 Moderator로 參席했던 李漢彬院長이 그곳에서 接觸한 많은 都市問題專門家들과의 對話를 통해 學科新設의 必要性을 切感하고 돌아 온 것이다. 그는 自他가 共認하는 刷新家로서 學校의 安定回復에 크게 寄與한 前任者 金曾漢院長의 뒤를 이어 1966年에 行政大學院 院長으로 赴任한 이래 教科課程의 改革, 教授發展을 위한 再教育機會의 마련과 新進要員訓練 등 눈부신 改革을 先導해 온 터였다. 이렇게 決心이 서자 그는 法科大學에 所屬되었던 젊은 權泰俊先生을 助教授로 拔擢해 오고 建設部를 거쳐 서울 市廳에서 都市計劃係長業務를 보고 있던 卒業生 崔相哲先生을 有給助教授로 起用하여 都市行政을 擔當하고 있던 本人 및 助教 金安濟先生과 네사람이 새로운 機關形成을 위한 計劃案을 마련하도록 忠용하였다. Harvard, UC Berkeley, UNC, UPenn. 등 美國大學의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內容을 參照하여 計劃案이 마련된 것은 그해도 저물어가는 초겨울이었다. 科設置趣旨, 教科目, 學生定員, 授與學位名<sup>(6)</sup>, 教授要員訓練計劃 등이 마련 되었다. 여기서 가장 애를 먹은 것은 教授要員訓練計劃이었다. 行政大學院新設 때와는 달리 마련된 外撥資

(4) 弘益大學校와 漢陽大學校의 工科大學에 都市計劃學科와 都市工學科가 新設된 것은 1968年의 일이다.

(5) 當時에는 요즈음과는 달리 碩士課程入學資格은 同一系列學士에게만 주는 것이 教育法의 內容이었고 專門大學院만이 例外를 認定받고 있었다.

(6) 當時의 教育法施行令에는 都市計劃學士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授與하려는 都市計劃學碩士學位를 줄 수 있기 위해서는 教育法施行令의 改正이 必要했는데 이것은 여러차례에 걸친 文教當局과의 折衷을 통해 1回 卒業生이 輩出되는—그러니까 學生募集을 하고 2年이 經過된—해의 卒業式 이틀前에 千辛萬苦끝에 實現되어 都市計劃學碩士를 줄 수 있었다.

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不得已 USAID, ASIA FOUNDATION, FULLBRIGT 등 在韓外援機關을 總動員해서 1년에 2명씩 要員을 渡美留學시켜 이들이 博士學位를 取得하고 돌아 올 수 있는 3年後 그러니까 70년부터 學生을 募集하도록 計劃하였다. (7) 우리는 마련된 이 計劃案을 가지고 朱源 建設部長官을 찾아갔다. 計劃專門家를 가장 아쉬워 할 建設部의 意見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朱長官말씀은 來年부터 新人生을 募集하라는 것이었다. 計劃家에 대한 需要가 하루를 다투는 時急한 形便이니 3년을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무렵 政府는 第1次國土開發綜合十個年計劃의 作成을 위해 UNDP와 資金交渉을 벌이고 있었고 一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高速道路建設이 具體化段階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全幅의인 支持를 받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두달밖에 안남은 기간동안에 學科新設을 해서 學生을 選拔해 달라는 朱長官의 부탁말씀은 우리 一行을 당황케 하였다. 저물어가는 초겨울 연탄냄새가 문풍지로 스며들어 머리를 아프게 하던 忠武路入口 어떤 三流음식점에서 저녁을 먹는중 마는중 鳩首戰略會議를 밤 깊도록 거듭하던 當時의 記憶은 一生 잊을 수 없다. 이렇게해서 外援機關責任者를 主軸으로하는 設立諮問委員會를 構成하고 本部에 設置된 總長을 長으로 하고 6個單科大學 教授들로 구성된 設立準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文教部의 承認을 받아 1968年 新學期에 行政大學院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는 發足하게 되었다. 機關은 發足되었으나 教授確保가 問題였다. 工大 建築科와 文理大 社會學科 地理學科 教授들의 支援을 받았으나 國內에서 얻기 힘든 新設科目의 講師는 不得已 外援機關에 나와있는 外國人 專門家와 PEACE CORP에 부탁하여 來韓한 美國 都市計劃學碩士들로 充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濠州에서 都市計劃博士學位를 取得하였다는 分을 專任으로 모실 것을 決定하였으나 處遇條件이 훨씬 나은 KIST로 가겠다는 通報를 받아 挫折되는 등 隘路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여기서 言及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機關形成要員들의 一致된 團結力과 粉骨粹身の 努力이 中樞的役割을 하였다고는 하나 學科新設의 刺戟과 指導力에 있어서 李漢彬院長의 能力과 刷新的 努力을 빼 놓을 수 없고 朱源 長官의 決斷性 있는 支援을 잊을 수 없다. (8) 이분들의 獻身的 努力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찾아 볼 수 있는 成功的 機關形成事例은 햇빛을 못 보았을 것이다. 두분에게 紙面을 빌어 感謝하고 더욱 健康하시어 精進하실 것을 빌어 마지않는 바이다.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新設과 關聯해서 그 背景으로 大韓國土計劃學會, 서울特別市都市計劃委員會, HURPI 등이 이 分野 專門家 養成에 크게 寄與한 點을 特記해야 할 것이다.

(7) 이 計劃에 따라 初期에 派遣된 教授要員은 盧隆熙, 洪性哲, 權泰坡, 崔相哲, 金安濟, 金炯國, 林岡源, 黃明燦 諸先生이다.

(8) 學科事務室과 教室로 配定받은 곳은 行政大學院 東側後面 2층 建造物이었는데 이는 學生會가 劍刀場으로 쓰던 곳이었다. 간막이와 2층 올라가는 階段마련 등이 本部豫算에서 執行된 支援의 全部였기에 電話購入부터 事務室汁器마련 및 鐵窓과 브란이드커튼을 마련하는 모든것은 朱長官의 支援으로 이룩된 것들이다.

朱源博士가 이끄는 大韓國土計劃學會는 1950年代에 創設된 以來 이 分野에 關心있는 人士들을 集結시키는 求心點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基本計劃構想등 수 많은 學術用役作品을 통해 많은 專門家를 養成하였고 서울시都市計劃委員會는 專門委員을 育成하여 이 分野에 크게 기여했으며 아시아財團의 支援으로 커져 간 HURPI도 젊은 建築家들의 計劃家的 識見을 넓혀 가는데 一役을 담당한 바 있다.

1969年은 行政大學院 創立十週年이 되는 해이고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誕生 후 1년이 지난 해이다. 그 紀念號로 마련된 行政論叢에서 權泰坡教授는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sup>(9)</sup>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첫 해였던 지난 一年間에는 難關도 허다하고 사소한 試行錯誤도 더러는 있었지만 設立趣旨書에 담긴 指標에 별로 어긋남이 없는 發展의 주춧돌은 놓였다고 본다. 比較的 短期間內에 그와같은 定礎가 可能했던 것은 本大學院만의 功이 아니었음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設立準備委員會의 設立 當時의 獻身的인 努力 그리고 設立 以後에도 設立委員들을 포함한 他大學 教授들의 個別的인 協力이 있어서 行政的인 運營의 圓滑 뿐만 아니라 設立趣旨가 기하는 바와 같은 諸科學綜合的 研究와 教育이 可能했던 것이다. 또 設立 當時 政府의 關係部處와 關聯外國機關의 關心있는 人士들로 구성된 設立諮問委員會의 積極的인 後援이 있어서 設立 當時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社會의 變遷과 항상 긴밀한 對話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言及해 둘 것은 亞細亞財團 獎學生制度에 대한 것이다. 地方自治團體에 勤務하는 事務官級 在職者들을 選拔하여 登錄金 一體와 生計費의 一部를 財團에서 支援하고 內務部는 獎學生들을 內務部 本部에 派遣勤務하도록 措置해 주었다. 이 制度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있는 官學協同의 좋은 본보기로서 대단한 成功을 거두어 오늘날 地方行政의 中堅幹部中 우리 卒業生들이 많이 活躍하면서 地域計劃이나 都市計劃에 새로운 氣風을 振作시키는 原動力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以上 新設學科의 形成은 行政大學院의 新設이 적지 않은 包括的 外援資金을 통해 教授要員訓練, 圖書購入, 顧問官派遣 등의 受惠속에 形成되었음에 비해 無에서 有를 創出한, 逆境속에서 成功한 事例임을 알 수 있다.

1972年 늦여름 文教部는 環境大學院 設立準備委員會를 構成하였다. 當時 文教部 吳聖植 企劃管理室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이 委員會에는 都市計劃, 造景, 建築, 土木, 植物, 美術, 林學 등 雜多한 專門家들이 委員으로 委囑되었는데 그 構成背景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3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始作되면서 지난 10年間的 눈부신 經濟成長이 가져온 副作用이 점점 커져서 公害防止法을 改正하는 등 一聯의 措置는 取하였으나 充分치 못해 環境問題에 對應해야 할 必要性이 切實해 졌고, 둘째로 開通된 高速道路의 山腹切開面에 대한 美的 醜함이나 山沙汰 우려 등에 最高政策決定者의 關心이 쏠려 靑瓦臺內에 造景擔當官職이 생겼

(9) 權泰坡,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將來,” 「行政論叢」 Vol. VII, No. 1, pp.110-111.

고, 세계로 慶州普文園地 등 觀光綜合開發計劃이 靑瓦臺 秘書陣에 의해 推進되어 오던 때이다.

環境이란 概念의 多義性에서 오는 學科問題, 設置場所 등 여러가지 論難이 있었으나 우리가 마련한 案이 大體로 通過되었다. 大體로 通過되었다는 것은 5科豫定이던 것이 環境工學科와 都市設計科 등은 빠지고 都市計劃學科와 造景學科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注目할 만 한 것은 環境大學院의 設置를 政府가 앞장서 자칫 保守的이 되어 刷新에 鈍感하고 下命式 教育單位 設置에 反感마저 갖고 있던 學校當局을 깨우치고 이끌며 準備委員會의 利害關係가 엇갈린 意見을 調整하는 努力을 아끼지 않은 閔寬植 文敎部長官과 吳聖植室長, 그리고 靑瓦臺의 造景擔當 吳輝泳秘書官에게 感謝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環境大學院의 設置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라고 反問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72년까지만 해도 環境問題의 學論은 經濟成長을 沮害시키는 要因이라 하여 禁忌로 되어 있었다. 그 한가지 좋은 例를 都市 및 地域計劃研究所(KEPSI)의 設置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71년에 行政大學院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 專任教授들은 學科附設로 韓國的 用役風土改善, 卒業生·在學生의 業務經驗參與勸獎과 就業時까지 架橋役割 및 教授들의 學問的인 韓國的土着化라는 目標밑에 研究所를 設置할 것을 決定하고 環境計劃研究所라는 名稱으로 主務長官의 許可를 얻으려 하였던 바 環境이란 用語가 時宜에 適合치 않다하여 結局 都市 및 地域計劃研究所로 名稱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이 不過 1年前의 일이었기 때문이다.<sup>(10)</sup>이 일을 생각하면 대단한 狀況變化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973년에 行政大學院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와 新設된 造景學科의 兩科로 學生定員 120名(學科 當時의 定員은 50名)으로 發足되었고 곧 이어 冠岳으로 移轉오는 隊列에 끼어 13棟에 자리잡고 10年을 成長해 왔다.

以上 살펴 본 行政學, 都市計劃學, 環境學의 導入을 위한 機關形成의 共通點은 그 學問의 綜合科學的 特性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專門化되고 細分化된 學問만을 純粹한 學問으로 보고 綜合科學的인 것은 雜學이고 實用성과 直結된 學問은 似而非學問이라고 嘲笑 받는 學界의 風潮와 專門大學院의 特殊性을 理解 못하고 亞流視하는 學園內의 輕視속에서 자라난 이 學問들이 그래도 뿌리를 내리는데 成功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先驅的 役割을 擔當한 學者들의 많은 勞苦가 깔려 있음을 意味한다. 行政學은 곧 單一科學으로 認定되었으나 都市計劃學은 좀 더 時間이 걸렸고 環境學은 아직도 遼遠한 形편에 놓여 있다. 특히 都市計劃學과 環境學의 導入에 社會科學者들에 의한 Initiative는 커다란 反撥을 사기에 充分하였다. 多幸히 都市計劃學의 경우 60年代의 美國都市計劃學의 潮流가 Paradigm의 轉換期여서 社會科學의 重要性이 強調되었고 이를 修學하고 나온 工科系 出身 都市計劃

(10) KEPSI는 創設후 13年동안 130여명의 이 分野 專門家들을 育成하는데 寄與하였고 서울特別市 基本計劃, 江原道綜合開發計劃, 天原郡計劃등 50여종의 學術用役을 遂行하여 이 分野의 成長에 많은 功獻을 하고 있다.

專門家들의 도움에 힘입어 이를 克服할 수 있었으나 環境學의 경우에는 生態學者나 汚染分析專門家들로 부터 적지 않은 反撥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順坦치 못한 路程을 걸어 온 環境大學院은 그래도 무럭무럭 자랐다. 그 成長의 素地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機關構成員들의 人和로 團結된 努力의 結晶이라고 볼 수 있다. 13名の 젊은 教授 全員은 海外留學을 통해 새로운 學問思潮를 吸收하였고 師弟之間 또는 先後輩라는 紐帶로 굳게 뭉쳐 있다. 往往 다른 機關에서 찾아볼 수 있는 構成員 各者의 利己的 單獨行爲는 이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고 多樣的 專攻의 異質性은 師弟 先後輩라는 同質性이 자칫 낡기 쉬운 Imbreeding 現象이나 摩擦現象을 充分하게 克服해 주고 있다. 尖端의 新學問을 國際性을 維持하며 Up To Date하게 教授할 수 있는 이들의 團結된 힘이 바로 이 機關의 成長을 이끌어 온 營養素인 것이다. 더욱 더 嘉賞한 일은 이들의 理論이 外國 것의 單純한 紹介나 消化不良症的 傳達이 아니라 韓國的 現實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점이다. 2次 國土開發綜合計劃, 都市基本計劃, 道計劃, 都市造景, 都市設計 等 計劃의 樹立에 直接 參加하고 地區計劃制度의 새로운 導入을 위한 研究의 先鋒將이 되었으며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定着化를 위한 努力도 앞장서서 擔當해 왔다. 이와같은 機會는 이들의 現實의 眼目을 키워주어 社會奉仕와 外來學說의 韓國的 土着化를 통한 教授內容의 豐富性이라는 一石二鳥格인 效果를 올리고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環境의 날(6月 5日) 紀念展示會, 1次 國土開發綜合計劃 公聽會를 비롯한 前後 15회가 넘는 各種 Seminar 主催, KRIHS, KDI, KEARI, UNESCO 및 政府各部處의 研究課題나 政策決定에 대한 諮問을 통해 大學의 三大使命의 하나인 社會奉仕에도 크게 寄與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對外的으로 볼 때에는 問題가 없지도 않다. 그 中에서 가장 時急한 것은 環境科學에 대한 學問的 體系化라고 할 수 있다. 最初의 “環境”大學院을 設置하고 育成해 온 이들에게는 環境計劃과 環境造景分野만으로는 環境教育의 綜合科學性을 充足시킬 수 없고 多分히 自然科學界에 埋沒되어 있는 環境分野를 發掘해서 그 綜合化를 통한 새로운 Paradigm의 形成을 이룩하기에는 未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 問題의 深刻性을 國內 環境教育現況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表-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設置以後 教育制度에 많은 波及效果를 미쳐 嶺南大學校, 弘益大學校, 漢陽大學校에 環境(科學) 大學院이 新設되었다. 江原, 慶熙, 東亞, 建國, 서울시立, 全北, 朝鮮, 亞洲, 仁荷 大學 등에는 <表-2>에서 보는바와 같이 學部課程에 環境(關係) 學科가 생겼고 環境이란 冠形詞가 붙은 教科目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環境問題의 學論을 禁忌視하던 政府가 70年代末에 와서 부더는 앞장서서 環境保全法을 制定하고 自然保護運動을 展開시키며 環境廳을 新設하는 등 積極的인 姿勢를 보였고 급기야는 環境權을 憲法속에 國民의 基本權으로 明文化시킨 時代思潮와 脈絡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이 서울大學校 境環大學院은 國內最初의 獨立된 環境專門教育機關으로서 國

〈表-1〉國內環境大專院現況

大 學 校	大 學 院	學 科	專 攻	學 位	設 立 年 度	學 生 數	專 任 教 授 數	附 設 研 究 所
서울大學校	環 境 院 大 學 院	環 境 計 劃 學 學 科	都 市 管 理 地 域 開 發 環 境 管 理 交 通 計 劃 都 市 設 計	都 市 計 劃 碩 士  (環 境 學 博 士)	1973  1982	120	8	環 境 計 劃 研 究 所
			環 境 造 景 學 學 科	造 景 設 計 都 市 設 計 環 境 造 景 計 劃 環 境 設 計	造 景 學 碩 士			
弘益大學校	環 境 院 大 學 院	環 境 設 計 學 學 科	建 築 設 計 都 市 設 計 造 景 設 計 室 內 裝 飾 設 計	工 學 碩 士 都 市 計 劃 碩 士 造 景 學 碩 士 工 學 碩 士	1981		—	環 境 開 發 研 究 所
漢陽大學校	環 境 科 學 院 大 學 院	環 境 計 劃 學 學 科  環 境 工 學 科	地 域 計 劃 都 市 開 發 都 市 設 計 造 景 建 設 水 質 污 染 大 氣 污 染 海 洋 污 染 소음·진동 및 산 업 공 해	環 境 學 碩 士 (신 청 중)	1982	170	2	環 境 科 學 研 究 所
嶺南大學校	環 境 院 大 學 院	環 境 管 理 學 學 科	—	都 市 計 劃 碩 士	1980	200	—	環 境 問 題 研 究 所
		環 境 工 學 科	—	工 學 碩 士				
		環 境 科 學 科	—	理 學 碩 士				

〈表-2〉環境關聯大學現況

大 學 校	所 屬 大 學	學 科 名	學 位 名	設 立 年 度	(入 學 定 員) 卒 業 定 員	專 任 教 授 數	備 考
江 原 大	自 然 科 學 大 學	環 境 學 科	理 學 士	1979	(52)40		
慶 熙 大	產 業 大 學	環 境 保 護 學 科	理 學 士	1979	(52)40		
建 國 大	工 科 大 學	環 境 工 學 科	工 學 士	—	(52)40		
서울市立大	工 學 部	〃	〃	1979	(52)40	5	
全 北 大	工 科 大 學	測 地 環 境 工 學 科	〃	1978	(52)40	3	測 地 專 攻 環 境 工 學 專 攻
朝 鮮 大	〃	環 境 工 學 科	〃	1983	(39)30		
仁 荷 大	〃	〃	〃	1982	(78)60		
亞 洲 大	〃	〃	〃	—	(104)78		
東 亞 大	〃	〃	〃	—	(65)50		
(釜山水產大)	工 學 部	〃	〃				
東 國 大	慶 州 分 校	環 境 造 景 學 科	미 상	1979	(52)40	3	

內的 環境學 發展 및 普及에 中樞의 指導役割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環境教育의 內容에는 아직도 解決되어야 問題들이 山積해 있는 것 같다.

學部水準에 環境專門教育을 行하는 學科가 생긴 것은 1980年을 前後한 時期였다. 江原大 學校 自然科學大學에 環境學科가, 慶熙大學校 產業大學에 環境保護學科가, 建國大學校, 서울市立大學, 全北大學校, 朝鮮大學校, 仁荷大學校, 亞洲大學校, 東亞大學校 等 7個 大學

〈表-3〉 環境關聯大學學科의 設講科目現況

學科 區分	江原大 環境學科	慶熙大 環境保護學科	東亞大 環境工學科	서울市立大 環境工學科
專 必	環境學 原論 應用數學 I 分析化學 및 實驗 環境物理學 및 實驗 I 野外實習 I 應用數學 II 生態學 概論 微生物學 環境化學 및 實驗 野外實習 II	環境學 I 生態學 I 無機化學 分析化學 및 實驗 環境法 I 水質污染管理 I 大氣污染管理 I 環境學實驗 I	流體力學 I 流體力學 II 大氣污染 水質汚濁 環境生態學 固型廢棄物 下·廢水處理工學 大氣污染制御工學 I	環境微生物學 騒音 및 振動 環境化學 및 實驗 用水處理 大氣學 都市 및 産業廢棄物處理 廢水處理 大氣污染統制 水質管理 環境工學設計
專 選	分類學 物理化學 有機生物學 海洋學 大氣物理學 및 實驗 氣候學 環境微生物學 및 實驗 陸水學 生物氣象學 環境調查法 및 實習 環境生態學 및 實驗 I 環境污染論 I 環境地球化學 廢水處理 廢水處理 및 實驗 II 環境物理學特講 環境生態學 및 實驗 II 環境污染論 II 環境保健學 輻射論 環境科學特講	環境學 II 有機化學 環境統計學 生化學 II 生態學 II 環境法 II 環境學實驗 II 物理化學 環境微生物學 燃燒工學 産業保健 基礎工學 大氣污染管理 II 水質污染管理 II 環境行政 環境經濟學 環境影響評價 環境影響評價 騒音·振動管理 野生生物保護 環境毒物學 放射線管理 廢棄物處理 環境生物學 電子工學 科學一般	環境污染力學 微氣象學 分析化學 및 實驗 水文學 大氣污染調查 및 實驗 水質調查 및 實驗 大氣污染制御工學設計 下廢水處理工學設計 大氣污染制御工學 II 下·廢水處理工學 II 環境 System Process I 環境調查論 燃燒工學 環境法 上·下水道工學 環境影響評價 環境計劃 環境 System Process II	流體力學 構造力學 有機化學 I 環境微生物學實驗 確率 및 統計 材料力學 製圖 熱力學 國土 및 地域計劃 水文學 철근콘크리트 I 公衆保健學 機械工學概論 下·上水道計劃 環境工學實驗 産業廢水處理 環境施工學 放射能衛生學 生態學

(校)의 工科大學에 環境工學科가, 그리고 東國大學校 慶州分校에 環境造景學科가 각각 設置되어 現在 總 10個學科에 學生定員은 458名(卒業定員을 意味)에 이르고 있다. 이들 學科에 設講되어 있는 科目을 江原大, 慶熙大, 東亞大, 서울市立大의 경우를 例로들어 살펴보면 <表-3>과 같다.

이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各大學에서 提供하고 있는 커리큘럼間에 共通的으로 겹치는 科目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環境教育의 範域이 얼마나 넓고 多樣하며 이 分野의 學者들 間에도 環境學의 基本的인 틀에 대한 意見의 一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意味한다.

또한 慶熙大學校 環保護學科를 除外하면 나머지 大部分의 大學들이 環境學分野中 主로 Hardware쪽에 集中되어있다는 점이 特徵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指摘되어야 할 점은 이들 大學에 專任教授가 부족하고 充分한 實驗을 할 수 있는 各種機材가 不充分하다는 점이다. 서울市立大에 專任教授 5名, 全北大에 3名, 東國大에 3名 등 大部分의 大學이 3~5名水準의 專任教授를 確保하고 있을 뿐이고 不足한 科目을 外來講師에 依存하고 있어 教育水準의 質의 低下를 면치 못하고 있다.

<表-4> 國內環境大學院의 設講科目數 및 履修學點數

大學院	學 科	專 攻	設 講 科 目 數			履 修 學 點 數			비  고
			總數	必須*	選擇	總學點	專必	其他**	
서울大 環境大學院	環境計劃    環境造景	都市管理	59	10(2)	23	30이상	20	10이상	
		地域開發		9(2)	24		18	12	
		環境管理		10(2)	23		20	10	
		交通計劃		9(2)	24		18	12	
		都市設計		8(2)	18		20	10	
		造景設計		9(2)	17		23	7	
		都市設計		8(2)	18		20	10	
		環境造景計劃		8(2)	18		21	9	
環境設計	8(2)	18	20	10					
弘益大 環境大學院	環境設計	建築設計	57	2(1)	22	24이상	6	18이상	
		都市設計		2(1)	20		6	''	
		造景設計		2(1)	17		6	''	
		室內裝飾設計		2(1)	19		6	''	
漢陽大環境 科學大學院	環境計劃	—	55	6	26	30	12	18이상	教職科目: 6 專攻選擇: 10 卒業論文: 2
	環境工學			6	20		''	''	
嶺南大 環境大學院	環境管理	—	46	6	10	24이상	12	12이상	
	環境科學	—		6	10		''	''	
	環境工學	—		6	10		''	''	

\* 必須란의 ( )는 論文研究를 말함.

\*\* 其他란은 專攻選擇, 論文, 教職科目 등 專攻必須 以外的 學點을 의미함.

〈表-5〉 國內環境大學院의 設講科目現況

빈 도	과 목 명	비 고
4개 대학원 공통	지역경제, 토지이용계획, 환경공학	3개 과목
3개 대학원 공통	도시설계, 교통계획, 지역계획(국토 및 지역계획 포함) 도시계획론	4개 과목
2개 대학원 공통	체계분석기법, 도시계획사, 도시재정, 환경심리, 환경영향평가, 계획과정론, 지역사회개발론, 도시사회학, 도시(관리)정책, 도시재개발, 환경오염측정, 수질오염, 위생공학, 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공학, 여가행태론, 도시건축론, 조경시공, 조경소재, 도시조경설계, 교통공학, 단지계획, 조경식물, 조경사, 주택론, 폐수처리공학	26개 과목
1개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체계론, 공간구조분석, 컴퓨터기법, 경제분석론, 도시개발지표, 계획이론 S, 사회개발 S, 공공투자분석, 계량분석, 자원경제, 통계조사론, 지역정책, 교통공학	(서울대)
(환경관리학과)	도시개발론, 지역과학론, 공간계획, 도시조경론, 입지론, 도시체계론, 국토계획론, 설계(I)(II), 단지조성론, 시각예술론, 조경양식론, 도시관련법규, 구획정리론, 한지특론 *(지역생태체계론, 도시생태론, 인구론, 도시운영관리)	(한양대) *( )는 환경계획과와 환경공학과 공통과목
(환경관리학과)	환경계획론, 환경조사분석, 환경계획연습, 환경관리 S, 환경관리론, 계획재정, 환경관계법규	(영남대)
(환경조경학과)	사회공간론, 경주환경사, 경관예술론, 조원설계, 지형조사분석, 표현기법, 여가공간설계, 지역생태학, 환경양식론, 국토조경관리, 환경설계 S, 도시설계, 환경정책 S, 도시설계방법론, 환경장식설계, 근린주구설계, 지구설계, 도시계획방법론, 한국조경 S, 지역형태체계, 광역조경설계, 환경조형설계	(서울대)
(환경설계학과)	건축계획특론, 건축설계특론, 특수연구과제, 건축의장특론, 건축구조학특론, 조경계획특론, 동양건축사특론, 한국건축사특론, 건축양식특론, 건축재료학특론, 건축음향학특론, 건축경제특론, 건축행정특론, 건축법규특론, 색채학특론, 미학특론, 조형예술특론, 현대미학사상특론, 환경특론, 인간공학특론, 도시시설공학, 도시사특론, 토지공법특론, 생태학특론, 조경계획특론, 조경설계특론, 배식특론, 조경재료 및 시공특론, 실내계획특론, 실내설계특론, 실내장식사용 및 적산특론, 가구디자인특론, 사회심리학특론, 실내조명계획특론, 실내장식특론, 일반구조학특론	(홍익대)
(환경공학과)	수질오염, 해양오염, 대기오염제거, 기상학, 소음진동제어, 도시하수처리, 미생물공학, 고도수처리론, 음향환경공학, 환경보전학, 산업폐수처리공해개론, 공해관계법규, 환경유체역학, 연안공학특론, 교통공해, 환경시스템공학, 수질학특론, 환경공학실험, 환경시공학, 환경계획학, 상수도공학,	(한양대)

(환경과학과)	환경생물학, 환경화학, 환경과학실험, 환경과학S, 수생태학, 대기오염학, 환경위생학, 환경과 영양, 환경지질학, 산업환경학, 환경미생물학	(영남대) 130개 과목 (以上 總 163個 科目)
---------	--	------------------------------------

\* 科目中 I, II 등으로 表示된 것은 1個 科目으로 간주함.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을 除外하면 大學院 水準의 環境專門教育도 1980年 以後에 비로소 시작되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環境專門教育을 행하는 大學院은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을 비롯하여 弘益대학교 環境大學院, 漢陽대학교 環境科學大學院, 嶺南대학교 環境大學院等 4個大學院으로 學科, 專攻 및 기타 具體的 現況은 앞의 <表-1>에 나타나 있다.

이들 4個大學院의 커리큘럼을 分析해 본 것이 <表-4>과 <表-5>이다.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個大學院에서 共通으로 設講하고 있는 科目은 地域經濟學, 土地科用計劃, 環境工學 等 3個科目뿐이며 都市設計, 交通計劃, 地域計劃, 都市計劃論 等 4個科目이 3個大學院에서, 體系分析技法, 都市計劃史 等を 포함한 26個科目이 2個大學院에서 共通으로 부여되고 있을뿐 130餘個科目이 4個大學院에서 獨自的으로 提供되고 있어 學部水準에 있어서의 環境專門教育커리큘럼만큼이나 多樣하게 構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커리큘럼」의 構成은 名稱에 있어서는 다같이 環境大學院이지만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의 경우는 都市 및 地域計劃 分野에, 弘益대학교 環境大學院의 경우는 環境工學 分野에, 嶺南대학교 環境大學院의 경우에는 都市 및 地域計劃과 環境工學 分野에 各 各 重點을 두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제각기 學校의 特色을 살려 깊이있는 當該分野의 專門教育을 實施하는 데는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環境問題라고 하는 巨視的인 틀 속에서 이의 解決策을 모색하는 環境專門家들을 養成하는 大學院에서라면 어느정도 共通的으로 부여해야 할 「에센스」科目들에 대한 合意가 이제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 한다.

한편 1983年 2月末現在 環境專門教育을 행하는 大學院의 專任教授는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이 13名으로 學生 14名當 1人임에 비하여 漢陽대학교 環境科學大學院은 2名, 그리고 弘益대학교와 嶺南대학교 環境大學院은 專任教授가 없이 學部教授와 外來講師에 의존하고 있는 實情으로 環境專門家養成을 위한 教授要員의 確保가 時急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環境專門教育은 大學과 大學院을 莫論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問題에 直面하고 있다.

첫째로, 環境學에 대한 外延과 內包가 不分明하며 이에 대한 學者들간의 合意가 없어 「커리큘럼」作成에 一定한 指標가 없이 學校마다 제각기 다른 科目이 提供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環境學을 專攻하는 學生이라면 반드시 受講해야 할 基礎 必須科目과 專攻分野에 따라 一定한 範圍內에서의 選擇이 행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專任教授의 不足現象을 들 수 있는데 특히 環境汚染處理技術分野에는 더욱 심각

한 實情에 처해 있다는 事實이다.

세째로, 大學과 大學院間에 連繫性을 維持하여 深化教育을 行할 수 있는 制度가 缺如되어 있다는 點를 들 수 있다. 環境大學과 環境大學院이 동시에 같이 設置되어야 效率인 深化教育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네째로, 環境專門教育을 深化시킬 수 있는 實驗이나 實習課程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大氣·水質等 各種 汚染水準을 測定할 수 있는 實驗資材들이 不足하고 大部分의 學校가 實習課程을 提供하지 않고 있다. 專門職業人의 養成은 곧 實務와 直結된다는 意味에서도 實驗이나 實習에 대한 充分한 施設確保와 科目提供이 要請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反省되어야 할 점은 環境大學院의 教育效果에 관한 것이다. 大學院教育이 Academic Education이나 Professional Training이냐에 대해서는 論難의 餘地가 있다. 특히 이른바 專門大學院이라는 職業大學院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環境大學院은 創設後 10年 동안 363名의 碩士를 輩出하고 있다. 이들중 確認이 可能한 297名의 進路를 分析한 것이 <表-6>이다.

이에 의하면 政府機關이 31.0%로 가장 많고 大學이 24.5%, 研究所.19.2%, 企業體 17.2%, 기타 8.1%의 比率로 卒業生들이 社會에 進出하고 있다. 이 中 比率이 높은 政府機關은 公務員身分인 2部 卒業生들이라고 본다면 大學과 研究所에 就業한 卒業生이 43.8%로 壓倒的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研究職 從事者가 많다는 것은 卒業時 職業人으로서 自立하는데 本院에서 받은 修業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技術士의 경우가 이를 證明해 주고 있다. 都市 및 地域計劃分野의 技術士로 21回까지 合格한 34名<sup>(11)</sup>中 30%인 10名이 本院 出身이고 造景分野 13名중 54%인 7名이 本院出身이나 이들中 技術用 役に 從事하는 技術士는 3名과 2名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 分野 自體의 Professionalism 이 確立되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나 우리의 教育內容이 Academic Education에 置重되었음도 同時에 意味한다. 이런 意味에서 1981年 權泰俊院長의 指導力아래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은 專攻制를 採擇하고 教科目的 大改編을 斷行한 것은 時宜에 適切한 措置라고 생각

<表-6> 서울大 環境大學院 卒業者の 進路

區 分 職種別	就業者數(名)	比 率 (%)
政 府 機 關	92	31.0
大 學	73	24.6
研 究 所	57	19.2
企 業 體	51	17.2
其 他	24	8.1
合 計	297	100.0

資料：서울大 環境大學院 同窓會名簿(1982)

(11) 이 數字는 韓國技術士會에 會員으로 登錄된 技術士의 集計다.

한다.

이제 눈을 國際社會에 돌려 보기로 하자. 環境問題로 인한 人類의 危機를 力說하여 全人類를 戰慄케 하였던 로마크립은 「成長의 限界」를 發表한 이후 4차에 걸친 報告書를 냈고 OECD 또한 Interfuture로 對應하는가 하면 美國政府마저 The Global 2000 Report to the President를 發表하여 人類의 앞날을 念慮하고 있다. 72년의 스톡홀름會議 이후 UN은 人口, 食糧, 都市, 海洋, 砂漠化防止, 물 등 各分野에 걸쳐 國際會議을 召集하여 環境問題의 重要性을 力說하고 UNEP를 통해 그 解決策의 模索을 위해 全力投球를 하고 있다. 人類의 앞날을 或은 悲觀的으로 或은 樂觀的으로 보는 것은 自由이나 이 모두는 現在의 政策에 變化가 없다면 或은 變化만 있다면 내지는 技術革新 및 그 利用速度에 變化가 없다면 或은 있다면 이라고 하는 前提下의 얘기다. 확실히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姿勢로 環境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고 Oswald Spengler가 말하는 이른바 Faustianman Syndrom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自然生態系에 影響을 덜 미치는 科學技術의 發達을 통해 脫生物的의 교만에 由來된 人類의 危機를 克服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國土面積, 人口增加, 密度增進 등 여러면에서 國際社會의 어느나라 못지않게 環境問題의 深刻性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環境問題의 科學的 分析 및 對應策의 마련과 施行이 急先務라고 하겠다. 이에 環境教育制度의 先驅者的 役割을 해 오고 또한 해 나가야만 하는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은 이러한 時代의 要請에 副應할 수 있도록 倍前의 努力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첫째로 資源, 에너지, 汚染등에 관한 새로운 學科를 新設하여 環境科學의 體系의 確立을 위한 對應策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둘째로 Professional Training의 補完과 大學의 社會的 奉仕機能을 遂行하는 의미의 學位課程아닌 短期코스를 設置하여 專門人力의 補修教育和 有關人力의 價值觀 變革을 위한 傳播教育을 실시해야 하며 세계로 環境大學의 設置를 통해 環境教育의 一貫性을 維持시키고 내제 現在繫留中인 博士學位名稱도 環境科學의 體系化를 통해 서둘러 確定지워야 하며 끝으로 教授들의 再訓練, 新任教授要員의 確保 및 圖書나 實驗器材 購入과 그 設置場所를 위한 空間確保 등이 校內外에 대한 時急한 課題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일의 成就에는 또하나의 10년이 所要될 것이다. 環境大學院 創立20週年記念行事가 있는 날, 오늘 이 時點을 되돌아 보아 「그래도 우리는 해냈노라」는 自負心을 가질 수 있도록 大學院 發展을 위해 모두 努力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미 그자리엔 現職으로 參加할 수 없는 本人도 決意를 새롭게 하는 바이다.